

홈플러스가 신학기용품을 할인 판매한다. 아이뮤즈 스텝북 14 아폴로 플러스 노트북, LG전자 그램 15형 i5, 삼성전자 갤럭시북 Ion, 삼성전자 컬러레이저 프린터 등 신학기에 필요한 노트북과 프린터를 행사가에 선보인다. 또 캐릭터 신기 기획세트, 원목·철재가구, 학습용 LED 스탠드, 실내용, 슬리퍼 등을 저렴하게 내놓았다.



비즈 포커스 | 금융·통신업계, 빅테크와 경쟁 위해 연합전선 구축

금융-ICT 맞손...디지털금융 선도 나선다

KT그룹, 우리금융과 전략적 제휴 디지털전환부터 AI 인재양성까지 LGU+·신한, SKT·하나 등도 협력



우리금융그룹 - KT그룹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식
일시: 2020. 8.19.(수) 장소: 우리금융 관공관로

통신과 금융이 손을 맞잡았다. KT그룹은 우리금융그룹과 1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전략적 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권광석 우리은행 행장, 구현모 KT그룹 대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동면 BC카드 사장, 사진제공 | KT

KT그룹 대표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물론 체결 당사자인 권광석 우리은행장, 이동면 BC카드 사장도 함께 했다. 4개 사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금융 디지털전환, 금융 AI 인력육성, 데이터 활용 신사업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실시간 대화형 플랫폼 구축과 클라우드 기반 재택근무 환경 조성 등 금융 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

확보하고 한층 더 편리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신한과 손을 잡았다. 6월 신한은행, CJ올리브네트웍스와 빅데이터 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통신·금융·유통 데이터 융합을 추진해 거주자 소비성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서울시 상권별 거주자 소비성향 데이터' 상품 등을 준비한다. LG유플러스는 '신한금융그룹 공통 메시징 사업' 주사업자이기도 하다.

SK텔레콤은 2016년 하나금융그룹과 합작투자법인 '핀크'를 출범하며 오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핀크는 다양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최근엔 SK텔레콤, KDB산업은행과 함께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가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유입출금 금융상품 '티드통장'을 선보이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또 SK텔레콤의 e스포츠 전문기업 'T1'과 파트너십을 맺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 공략에도 나섰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 또는 '테크핀'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통신기업과 금융기업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반 서비스 출시는 물론 금융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디지털전환', 최근 주목받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에서 우위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금융기업의 경우 최근 금융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기업과의 경쟁을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KT그룹은 우리금융그룹과 1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전략적 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주요 주주라는 공통분모도 가지고 있다. 협약식에는 구현모

“코로나19로 상반기 앱 사용 크게 늘어” 앱애니 조사 결과, 앱 소비자 지출 59조원 기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전 세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앱애니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상반기 모바일 현황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앱 소비자 지출은 5월 68억 달러로 정점을 찍으며, 지난해 하반기보다 10% 증가한 500억 달러(59조 원)를 기록했다.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모두 반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냈다. 앱 다운로드 건수도 2019년 하반기보다 10% 상승한 640억 건을 기록했다.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1조6000억 시간을 모바일에서 보냈다. 특히 4월에는 하루 평균 깨어 있는 시간 중 27%(4.3시간)를 썼다. 이는 2019년보다 20%나 증가한 수치다.

비디오 스트리밍 앱과 모바일게임은 물론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으로 비즈니스 앱과 교육 앱까지 전체적으로 사용량이 늘었다. 앱애니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 시간 동안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신한카드 '디지털 이노베이션 아이디어 공모전'

신한카드가 9월 30일까지 '2020 디지털 이노베이션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정보통신 신기술 관점에서 혁신을 도모하고 내부역량이 아닌 외부의 관점에서 카드 비즈니스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마련했다. 또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민첩성과 유연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 발굴 목적도 있다. 그간 상용화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로 디지털 비즈니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 수상자의 경우 신한카드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특권을 제공한다. 팀 수상자에게는 신한카드 아임벤처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애경산업 '케라시스 어드밴스드 앰플 케어' 출시



애경산업이 '케라시스 어드밴스드 앰플 스페셜 케어'(사진)를 선보였다. 고성능 앰플로 손상된 모발에 영양을 채워주는 스페셜 헤어케어 제품이다. 워터 제형이 물을 만나면 크림 형태로 변하는 앰플 워터 트리트먼트 2종, 고영양 앰플을 처방해 손상된 모발에 영양을 더해주는 앰플 헤어팩 2종, 모발에 윤기를 더해주는 앰플 세럼 3종 등 총 7종으로 구성했다. 헤어 스스로 관리하는 셀프 홈케어족이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개발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정욱 기자

쉐보레, 비대면 'e-견적 상담 서비스' 도입

쉐보레(Chevrolet)가 '쉐보레 e-견적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쉐보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매장을 방문한 것과 같은 수준의 견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쉐보레 전 차종의 내·외관 고화질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트림과 옵션, 액세서리까지 선택할 수 있다. 포인트·할인, 결제수단, 탁송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직접 입력해 상세 견적을 받을 수 있어, 대면 견적 상담과 차이가 없다.

쉐보레 e-견적 상담 서비스를 통해 받은 견적 정보는 저장 가능해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거나 취소가 가능하며, 실제 구매를 원하면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사전 예약금 결제 후 담당 카메라너를 통해 계약을 완료할 수 있다.

정정윤 한국지엠 마케팅본부 부장은 “쉐보레 e-견적 상담 서비스 출시로 고객에게 혁신적이면서 좀 더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뉴노멀 시대'로 진입하게 된 만큼 쉐보레 브랜드는 고객의 새로운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업무 효율성 ↑ 코로나 위험 ↓ ...“영업점 창구 대기시간 줄여라”

우리銀, 네이버서 창구 대기정보 제공
하나銀 신청서 사전작성 서비스 도입

시중은행들이 고객의 영업점 창구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영업점 창구 대기시간 단축을 통해 고객과 직원의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 오프라인 노출 시간을 줄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위험을 낮추려는 목적도 있다.

먼저 영업점 대기정보와 모바일 번호표 제공 서비스가 눈에 띈다. 우리은행은 3일 네이버와 제휴를 맺고 '영업점 대기정보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이버 모바일 앱에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400여 개 지점의 실시간 대기고객 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앱과 연동된 우리은행 안내 페이지에 접속하면 모바일 번호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다. 은행이 자사 채널이 아닌 외부 채널로 영업점별 실시간 대기고객 수를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뱅킹 앱 '솔(SOL)'에서 모바일 번호표를 제공하는 '영업점 방문예약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영업점 방문 고객의 이용시간 단축을 위한 신청서 사전작성 시스템도 인기다. 하나은행은 7월 '스마트창구 플러스 서비스'

를 도입했다. 영업점 방문 고객이 대기시간 동안 거래할 업무에 대한 필요정보를 사전작성하면 창구 업무 시 미리 작성한 서식과 정보로 간편히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적용 업무는 입금, 출금, 환전, 전자금융, 비밀번호 변경 등이다. 특히 모바일 QR코드 접속을 통한 신청서 작성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더욱 편리하다는 게 하나은행 측 설명이다.

KB국민은행도 6월부터 'KB모바일 신청서 미리 작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영업점에 배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적용 업무는 가계대출, 통장재발행, 비밀번호 변경 등이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고객의 영업점 창구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시중은행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우리은행과 네이버가 함께 진행하는 '영업점 대기정보 실시간 확인 서비스'(위쪽)와 하나은행의 '스마트창구 플러스 서비스'(아래쪽) 사진제공 | 우리은행·하나은행

“정장 입은 기사가 운전”...카카오, 고급 대리 서비스 선포

보험 범위 늘리고 전용상담센터 운영
수도권서 시범 서비스 후 지역 확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고급 대리운전 서비스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대리 프리미엄(사진) 서비스'를 출시했다.

정장을 입은 베테랑 기사가 출차부터 주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보다 확대된 보험 보장 범위와 전용 상담센터 운영, 대기 서비스(15분 무료) 등이 특징이다. 그동안 프리미엄 대리운전은 법인용 서비스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계약된 법인 고객 임직원들만 이용 가능했다. 하지만 카카오T 대리 프리미엄 서비스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기 기사는 무사고 이력 검증, 카카오T 대리 고객 후기 및 평점 검토, 대면 면접



등을 거쳐 모집했으며, 전문 서비스 교육도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한 뒤, 운영 지역과 기사 모집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4분기에는 기업 고객 대상 서비스를 선보이며 법인용 대리운전 시장에도 진출한다.

류궁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대리운전은 음주 후 이동 수단이라는 고정적 개념을 벗어나 병원 치료 후, 야근 후 편의 귀가 등 이용자 요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경제현장.jpg

“올 첫 수확한 햅쌀 맛보세요”



롯데마트가 올해 첫 수확한 경남 창녕 햅쌀을 선보였다. 창녕의 온화한 기후로 타 지역보다 다소 빠르게 수확했다. 첫 햅쌀 출시 기념으로 26일까지 '엘고 길 햅쌀(4kg)'을 정상이 2만800원, 엘포인트 회원이 1만8800원에 판매한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롯데마트